



데이빗 영맥주석

룻기

David Spiritual Commentary

룻기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데이빗리 목사

룻기 1장 =====

[룻 1: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
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 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
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들어있는 성경입
니다. 룻기는 사사기 때 일어난 내용이지만 룻을 통
해 다윗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통해 12명의 사사들이 활
동하고 있는 어떤 시점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사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룻이 다윗 왕의 증조
모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사사 때인지 추정할
수 있는데, 다윗의 헤브론 통치 시작이 기원전 1010
년경이었으므로 대략 12세기 후반 경의 사사 기드
온의 시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주한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자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엘리멜렉 역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 1: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룻 1: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라 거기 거한지 십 년 즈음에

[룻 1: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까닭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에 거주해 살면서 가정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써 당한 고난치고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이러한 고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에도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대략 7km 정도 떨

어진 유다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모압 지방은 요단 동쪽에 있으며 르우벤 지파 옆에 위치해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룻 1:6]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 1:7]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유다 땅에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모압 땅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6절). 두 자부도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려 했으나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는 각기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저들이 함께 유다 땅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압 자부들과 함께 유다 땅에 가는 것이 창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부들을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부들이 이방 나라인 유다 땅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룻 1:8]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 1: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룻 1: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룻 1:11]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룻 1:12]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룻 1:13]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 1: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에 임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고난을 내리시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과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당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른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재수가 없어서 당한 일이든지 당한 고난과 역경은 변함이 없으나,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당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악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

라에 와서 살았던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나오미로 하여금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한 여인으로 만드시나요!"라고 따졌다면 나오미의 일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여인의 삶으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난과 역경이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난과 역경이 무엇 때문에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당신의 생각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 때문에 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인생 역전은 이뤄질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듯이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룻 1:15]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 1:16]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 1:18]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떠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 나이다..."(16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룻이 얼마만큼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남편이 죽은 상태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고 한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룻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룻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나오미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6절 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는 단순히 나오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한 말이
라기 보다는 룯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룯은 그동안 나오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룯
은 자신있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
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룯이 이처
럼 강경하게 나오자 나오미는 더 이상 룯의 마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룯 1: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룯 1: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
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룯 1: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
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룯 1: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
인 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지만 되돌아 올 때는 자부 롯 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가 되돌아 온 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며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오히려 저들의 환대를 뿌리치며 "...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20절 상)고 말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의 <나오미>가 '쓰라림'이란 뜻의 <마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나오미'에서 '마라'로 변하는 법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21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모두 <나오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때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며 '감미로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마라>란 이름을 받게 되어 '쓰라림'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룻기 2 장 =====

[룻 2: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 2: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찌어다 하매

[룻 2: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 2: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 2: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뉘 소녀냐

[룻 2: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룻 2: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 2:8]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
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 2: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라 목이 마르거든 그룻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
을 마실찌니라

[룻 2:10] 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룯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 그 때가 곡식을 추수할 때인지라 이삭을 주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
한 자들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이나 밭의 가장자
리 부분의 곡식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룻 2: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라 목이 마르거든 그룻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
을 마실찌니라 [룻 2:10] 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
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룯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2절 중)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룯이 이삭을 줍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처럼 이삭을 줍는 것조차 어렵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룯은 모압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여인들도 이삭 줍기가 힘들었는데 이방여인이 이삭을 줍기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중에 룯과 같은 힘든 생활을 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 중에도 룯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룯을 사랑하시어 그녀를 위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3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룯이 보아스 밭에 갈 수 있었

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룯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찌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들렀습니다. 보아스는 매우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군사나 재물을 많이 거느린 귀족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많은 재물을 가진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밭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룯이 이삭을 줍는 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룯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보아스의 밭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우연'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룯의 밭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밭걸음을 인도해 주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더욱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때에 롯과 같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8절)고 배려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친절을 베풀신 것입니다. 롯은 보아스의 친절에 너무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10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보아스의 보인 친절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롯은 보아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다 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할 것도 없이 땅에 엎드려져 감사의 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처럼 땅에 엎드릴만큼 감사를 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보다 더 적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감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때문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롯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보다 더욱 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룻 2: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 2:12]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왜 룯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11절). 보아스는 룯에게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하면서 "...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12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룯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았던 것은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1절).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혈연관계였습니다. 혹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였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혈연관계였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오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룯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보아스가 룯에 대해서도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룯에게 친절을 보여준 것은 그가 룯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친족 나오미의 자부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돕기 위한 배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룯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보아스와 룯의 생각은 한 걸음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가문을 형성하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룯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룯 2: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볍은 곡식을 주매 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룯 2:15] 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 2:16] 또 그를 위하여 줍에서 조금씩 뿜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 2: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 2: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보아스는 룻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보였습니다. 식사할 때에도 함께 자리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14절 중)는 말은 매우 훌륭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부를만큼 먹도록 하였습니다. 떨어진 곡식을 줍는 가난한 자들은 이처럼 주님의 상에 함께 할 수 없었으며 변변찮은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자신과 함께 자리하게 하고 식사하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곡식을 추수하는 하인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절대로 꾸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룻을 위해 줍에서 조금씩 뿜아 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떨어진 곡식을 쉽게 줍

도록 하게 했습니다. '곡식 단 사이'라는 말은 추수한 곡식을 한 곳에 묶어 놓은 곡식 단을 의미합니다. 추수를 위해 거둬드린 곡식 단에는 떨어진 곡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릿은 곡식 단 사이에서 쉽게 떨어진 곡식을 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배려로 쉽게 곡식을 주운 릿은 거의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 용량은 대략 23리터 정도로서 12되나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처럼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다는 것은 보아스의 친절이 참으로 대단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릿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푼 것은 릿이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시집 간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과부된 여인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보아스에게 예뻐 보였을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릿에게 최상의 친절을 베풀었고 릿은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 삶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릿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릿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친절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 보십시오.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룻 2: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뉘게서 일한 것을 시모
에게 고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 2: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
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 2:21]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
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고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 2:22]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
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 2: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
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고까지 이삭을 주
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보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더욱 나오미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필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룻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들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푼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20절 중)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생존한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한 자'는 남편 엘리멜렉과 죽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러한 고백을 드렸던 이유는 보아스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를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20절 하).

'기업을 무를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는 기업을 잘 유지하고 혈족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무를 자'는 가난한 혈족을 위해 그 혈족이 판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레 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생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레 25: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민 35:21] 혹은 원수가 되어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또한 친족의 당한 죄값을 대신 받아야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민 5:8] 만일 죄값을 받을만한 친족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또한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형제가 대신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기업을 무를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유다의 경우엔 아들 2명이 죽고서 막내 아들이 대를 이를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해야만 했습니다. 보아스의 경우는 나오미의 친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룯으로부터 자손을 낳도록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계대결혼의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법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신 25:5] 형제들이 한데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 25: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 25: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 이다 할 것이요 [신 25: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신 25:9]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신 25: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곤장을 맞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아닌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정도의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미망인을 취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사람들이 주는 수모를 당하는 편을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의 경우는 성읍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롯에게 마음이 이끌렸고 참으로 아름답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즐거움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당한 아픔과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희망이시니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 뿐입니다.

“[전 9:4]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룻기 3 장 =====

[룻 3:1]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 3:2]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
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 3: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
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 3: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룻 3:5]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 3: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
로 다 하니라

[룻 3: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
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 3: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룻 3:9]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룯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룯과 보아스를 짝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룯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곳에 참여할 것이고 타작이 끝난 후에 파티를 열 것이니 기분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작이 끝나고 파티를 마친 후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몰래 그 발치 이불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어 있으면 보아스가 룯에게 해야 할 것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룯은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무리 룯이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억지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는 계획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룯은 아무런 불만없이 온전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룯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며느리

였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룯에게 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룯에게는 매우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며느리라 할지라도 뛰쳐 나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쩌면 평생토록 친정 부모와 식구를 만날지 못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모든 아픔을 뒤로 하고서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이런 룯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룯의 지극정성에 감동을 받아 어떻게 하면 며느리 룯을 도와줄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룰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타작이 끝나고서 잠이 든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서 그곳에 누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사람이 이불 속에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서 깜짝 놀랍니다. 누어있는 사람이 여자인줄은 감각적으로 알았으나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룯은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 당신의 옷자

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9절 중)라고 말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자신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지혜스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9절 하). 단순히 성적으로 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무를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하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보아스로 하여금 정당하게 룻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룻 3:10]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 3:11]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 3: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 자나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룻 3:13]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

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즐겨 아니하면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찌니라

보아스는 롯에 대해 매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롯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은 그녀가 연소한 자를 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연소한 자를 좇지 않았다는 말은 젊은 남자를 그리워하여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롯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젊은 남자를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로서 그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그 어떠한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롯의 행동에 대해 "... 너의 베풀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10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롯이 젊은 여인으로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롯을 향해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네가 현숙한 여자인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11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모두 롯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다는 말은 롯에 대해 최고의 칭찬을 해 준 것입니다.

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 잠언 31장 후반부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보아스는 룯에게 기업을 무를 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기업을 무를 가장 가까운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룯을 취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도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포기하면 당연히 보아스가 기업을 무를 자가 되어 룯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2-13절).

[룯 3:14] 룯이 새벽까지 그 밭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룯 3:15]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룯 3:16] 룯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고하고

[룯 3:17]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
더이다

[룻 3:18]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
떻게 될찌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
아보기 힘든 때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하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밤 늦게
보아스의 침실에 드나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겉옷을 펴게 하고 보리를 여섯번 담아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여섯번 담아준 것은 그녀의 고난이 끝났음
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6년 후에 7년째
가 되면 해방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를 여섯번 담아 주면서 속으로 '당신의 고통은 이제
끝이요!'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종결시켜 주십
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
는 것은 아닙니다. 룻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있는 것
입니다. 룻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룻만이 보아스를 얻었습니다. 이는 룻

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겨지도록 뭔가를 해야 합니다. 마치 룯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여인은 보아스 뿐만 아니라 보리조차 구경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만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룯이 매력적이었듯이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룻기 4 장 =====

[룻 4: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 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룻 4:2]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십인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룻 4: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룻 4:4]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무르리라

[룻 4:5]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찌니라

[룻 4:6]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
노라

[룻 4: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
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
하는 전례가 된지라

[룻 4: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주 빠르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빨리 일
처리를 했던 이유는 룻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일처리를 빨리 하지 않았다면 룻의 마음은
여러 날 근심 걱정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이런 빠른 일처리를 통해 룻은 더욱 보아
스를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
였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갔습니다. 보아스는 그
게 성문 위로 올라오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였고 백성들도 증인으로 함
께 하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을 무를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업
무를 것을 결정하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가 기업을 무른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무른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기업무를 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 그가 가로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4절 하). 보아스는 바로 이 순간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결정적인 지혜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롯은 영영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자에게 "...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찌니라 하니"(5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네가 나오미에 속했던 그 밭을 사게 될 때에 롯도 함께 아내로 거뒤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여유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오미를 위해 밭을 사 줄 수는 있었지만 롯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롯을 통해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을 낳게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 무를 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무를 것을 거부한 이유를 성경은 "...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6절 중)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낮게 취급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보아스는 마음의 계획대로 롯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자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위해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룻 4: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
고

[룻 4: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
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 4: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룻 4: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
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 삼고서 그
들 앞에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죽은 자의 기업
을 잇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조치는
룻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보아스는 충분히 사람들
몰래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룻은 비천한 모압 여인이었기 때

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고 롯은 아주 어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고엘제도를 지켜 행하는 유대인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롯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대로 행 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여느 사람들처럼 대충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충 모압 여인 롯을 첩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아스를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야 하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다 철저하게 법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는 롯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절차대로 행함으로써 롯은 확실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롯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존재가치를 스스로 높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변화는 그녀의 자녀로 하여금 높은 자긍심을 갖게 했을 것입

니다. 엄마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에게도 높은 자긍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러한 여인 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축복은 보아스의 배려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보아스처럼 이러한 배려를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 배우자에게 보아스와 같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녀에게 보아스와 같은 배려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까?

[룻 4:13] 이에 보아스가 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 4: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찌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 4: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자부가 낳은 자로다

보아스는 룯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읍 사람

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며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15절)고 말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을 때에 나오미는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인생은 가난 외에 찾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난 중에 거했던 나오미에게도 한 줄기 빛은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낮은 자였던 며느리 룯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형성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룯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였으며 노년의 봉양자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이 뒷따른 것은 그녀가 며느리를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인답게 며느리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룯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룯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룯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할 때에 나오미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심할만한 순간에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22]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룻 4:16]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 4:17]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 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친히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어찌나 나오미가 손자를 사랑으로 돌봤던지 그 이웃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오벳의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모인 셈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모인 셈이지만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계대결혼을 통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것도 부족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는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룻 4:18]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룻 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룻 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룻 4: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 4: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다의 족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일부러 '베레스의 세계'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베레스'가 계대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스는 아버지 유다와 형수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대결혼을 통해 낳은 베레스는 또 다시 그의 자손 중에 계대결혼을 통해 낳은 '요벳'을 갖게 됩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

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으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요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살몬'은 이방여인 '라합'과 결혼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의 아내는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는 이처럼 다소 지저분한 가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형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으며 이방 기생과 결혼한 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통해 친족의 씨를 잇게 해 준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지저분한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지저분한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서 그녀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지저분하고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한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지저분하

고 더러운 가문에서 다윗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우리의 가문에도 위대한 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수혼법(Levirate Law) - 계대결혼

수혼법이란?

수혼법은 형제 중에서 큰 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동생 혹은 친족 중에서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만들어진 법을 말하며 대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계대결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신 25:5]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 25: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

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역사적 배경

수혼제도는 고대 근동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결혼풍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최초로 유다의 아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와 합하여 아들을 낳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일부러 땅에다 설정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창 38:6-10).

이러한 수혼법은 모세에 이르러 성문화되었습니다. 수혼법이 성문화 된 이후에 이 법에 따라 결혼한 부부 중에서 룯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룯의 친족이었지만 계대결혼법에 따라 룯을 통해 나오미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룯 4장). 보아스와 룯을 통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으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수혼법의 의미

수혼법의 근본 목적은 대를 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죽은 자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수혼법을 통해 과부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 유대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혼법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토록 지속하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하여서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아가서

초판발행	2025.12.0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참영성!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심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박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